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17회

17. 예수님의 독특성(8.14.10. 17회)

2010년 8월 14일(안식일 아침)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序;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구주되신 사실을 강론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취하셔야만 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특성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특성들은 전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취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특성은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르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함께 온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로써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로 우리에게 나실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의 한 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삼위의 다른 위이신 성부와 성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창조주이신 것도 삼위가 다 동일합니다. 구주가 되는 것도 삼위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일이 없습니다. 삼위 중에 이 두 위는 언제나 신성으로만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독특성과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2. 사람이 되심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의 독특성은 대체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주는 사람이 되어 사람이 사는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함은 사람이 벼러지 된 것보다도 더 어렵고 낫게 되는 것이라”고 복음성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진리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여러 제도를 통하여 구주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을 물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친족 중에 가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불가불 팔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사서 판 친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레25: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근족이 와서 물어주어야 하는데, 물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속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엘 제도는 바로 예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물어주는 일을 할 것을 가르치는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이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과 민수기와 신명기 등에 고엘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종합하면 고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엘”的 책임 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 주어야 합니다.(25절) (2) 근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47-49절) (3) 근족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합니다.(신25:5-10;마 22:24) (4) 근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 복수할 책임이 있습니다.(민5:8절) (5) 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우에 따라 친족의 죄 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민5:8) 그러므로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호 간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며, 나아가 이것은 인류의 대속자가 되사 그들을 구원코자 피로써 무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보여 주는 제도입니다.(요 3:16;엡 5:2)

고엘은 반드시 근족, 즉 아주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고엘의 직무를 수행하시려면 사람과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즉 고엘의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 그분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또 고엘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녀를 낳아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처리하시고 생명의 자녀를 낳아주려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고엘은 친족이 죄를 지었을 때 대신 죄 값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물질이나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갚지만 사형에 하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대신 죽어야 죄 값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사형수가 되었을 때 그 사형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사형수 사람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신데도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엘은 근족이 팔아버린 토지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귀가 빼앗아간 이 지구를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근족이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의 광야에서 감히 예수님께 이 지구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눅4:5,6]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이 지구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조가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마귀가 이 지구를 차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물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 지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마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또 마귀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을 살인한 살인자이지요. 아담 안에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 곧 세상 맨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다 죽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아담 가족의 친족이 되셨기 때문에 이 마귀를 멀하여 없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해 주십니다. 마귀를 멀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2:14,15]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물어주어야 할 대상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설명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자녀가 없으면 대신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하는 것도 고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엘의 책임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제도로 계대결혼 제도를 수용하셔서 가르쳐주십니다. 계대결혼은 다른 말로 형사취수(兄死娶嫂)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지방의 생활풍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셔서 고엘의 책임을 가르쳐주시므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여서 자녀를 낳아주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사람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허물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하지요.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유를 학자들은 이런저런 말로 설명들을 합니다. 그중에 고통 점은 아무리 구주의 조상이라도 다 허물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도 구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모친 마리아까지 다섯 명의 여자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생명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도덕적 상태로 말한다면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 것은 그 당시 도덕 기준으로는 반드시 죽을죄입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도덕적 잣

대로 재면 다말이나 라합보다 낫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의 처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말이나 라합과 같은 범주에 넣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같은 처지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낳아서 생명 기업을 잊게 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사단에게 죽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표상한 여자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류를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고엘의 책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이런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며 희생입니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분께서 다른 두 위와 다른 독특한 모습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2. 죽으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에 예수님이 취하신 독특성에 또 하나는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 오직 사람으로만 사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했습니다.

[요1: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당장 알았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은밀히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있는 자기를 사는 것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은 것이지요.

[마14: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요5: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실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를 위하여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대신 죽지 않으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완전히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고 이 지구는 공허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지 못하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제가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명령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명령이 동시에 다 성취되도록 해야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한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가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그의 후손들에게 끼쳐줄 수 없게 되었고, 죽을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

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그의 사망을 유예하시고 유예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지만, 그들도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면 다시 영생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구주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 이시지요. 예수님은 아담과 아담 후손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아담에게 선고된 그 죽음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폐하신 것입니다. 히2:14,15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사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영원히 드러내셨습니다. 힙 2:14과 같은 의미의 말씀은 딤후 1장에도 있습니다.

[딤후1: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망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는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엘은 친족의 원수를 갚아주는 일도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때는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있을 일이지만, 마귀는 이미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행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신 경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만의 독특성입니다. 전적으로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히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입니까.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랑을 실감하시는지요.

3. 부활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의 독특성은 첫째 육신이 되신 것이고, 둘째 죽으신 것이고, 셋째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지요. 부활이라고 하면 당연히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다는 말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사망보다 능력이 크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된 것입니다.

[고전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호13:14]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은 이제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흰 보좌 심판 후이지만, 이미 사망은 그 가치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계20:14]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고전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심판 후에 사망과 음부가 불 못에 던져질 때 사망이 멸망합니다. 우주 어디에서 사망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심에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아무리 중요하고 넘치는 은혜라고 하더라도 부활로 마무리 되지 않았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고전15:13~19]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롬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생명의 종교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종교도 사망을 이긴 종교가 아니고 다만 도덕적 선을 권장하는 교훈의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교, 성경의 종교는 도덕론이 기초가 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과 존재가 기초인 종교입니다. 그 생명, 그 존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단호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도덕적 선악으로만 구원과 멸망을 받는다면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행이 중요하지요. 그분이 행하고 가르친 그 선하고 의로운 교훈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생명과 존재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며 창조로 존재하게 하신 존재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 일 외에는 생명과 존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중에 살도록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독특성입니다. 이런 일을 이행하심으로 그분은 완전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4. 교회를 세우심

예수님의 독특성의 마지막 한 가지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교회를 친히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16:18절만 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반석이 되지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고전3: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전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들은 다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그들을 따르며 보호한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가르칩니다.

[신32:18]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삼상2: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삼하22:2]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시18:31]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사26: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사44:8]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교회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반드시 그 렇지도 않은 세월이 된 것 같습니다만 시집을 가면 여자는 그 사는 집이 바뀝니다. 남편의 집이 그의 집이 됩니다. 거기가 그의 생활 터전이 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남편 예수님께 시집을 간 사람들입니다.

[고후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남편 되시는 예수께서 그의 신부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을 터전으로 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에게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배우고 성장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딤전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식구들이며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생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곧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계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 두 장에 일곱 번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까지 흔들림 없이 바른 걸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특성을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도 우리가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더구나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애청자들께서는 이런 사랑을 실감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하도록 지도하시려고 주장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참 교회에 소속되어 하늘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수행하면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중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오늘도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둔자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활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올바르게 인도하여 하늘까지 이를 수 있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 터전이 교회생활에 충실히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도리를 잘 배우고 깨닫게 하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바르게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에게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